

2023년 2/4분기 전북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23. 3.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대상 기간	3
3. 조사실시 기간	3
4. 조사대상	3
5. 조사방법	3
6. 조사항목	3
7. 집계방법	3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3
II.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4
1. 종합 경기전망	4
2. 응답업체 분포	5
3. 항목별 경기전망	6
4. 업종별 경기전망	6
5. 규모별 경기전망	6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7
7. 지역별 경기전망	7
8. 2023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설정	8
9. 올해 상반기 예상 경영리스크	9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3년 1/4분기(1, 2, 3월)- 실적기간
- 2023년 2/4분기(4, 5, 6월) -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3년 2월 27일 ~ 2023년 3월 10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13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 방문 조사하였으며, 조사표 기입은 간부급에서 기록하도록 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라북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9개 업종), 매출 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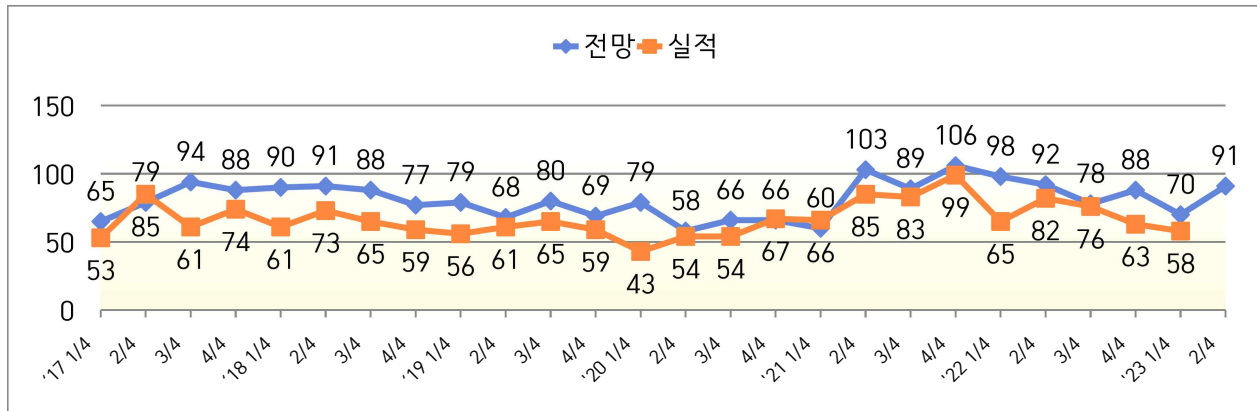
Ⅱ.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종합 경기전망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 실사지수 '91'
지난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어려움 지속 전망**

- 지역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수요둔화 등 복합적 대외 변수와 고물가,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지역 제조기업들은 2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13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2023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91'로 나타나 전북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2분기 경기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2023년 1/4분기 실적지수 '58')
- 특히,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교적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중견기업(63)이 중소기업(97)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이와 같은 중견·대기업의 경기악화는 지역 내 투자위축과 관련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국내외 경기상황이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은 물론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



【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90	91	88	77	79	68	80	69	79	58	66	66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실적치	61	73	65	59	56	61	65	59	43	54	54	67	66	85	83	99	65	82	76	63	58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2/4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 이라는 응답은 22.1%(25개사)로 나타났으며, ‘비슷할 것’ 이라는 응답은 46.9%(53개사), ‘악화될 것’ 이라는 응답은 31.0%(35개사)로 나타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3년 1/4분기 전망	2023년 2/4분기 전망
호 전	12.5%(14개사)	22.1%(25개사)
비 슷	44.6%(50개사)	46.9%(53개사)
악 화	42.9%(48개사)	31.0%(35개사)
계	100.0%(112개)	100.0%(113개)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95), 영업이익(89), 설비투자(98)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며 다음 분기에도 부진을 전망함

【 2023년 2/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전망)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공급망안정성	공장가동여건
BSI	95	89	98	88	90

4. 업종별 경기전망

- ☐ 2/4분기 전북지역 제조기업들은 업종별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선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132), 기계금속(108), 비금속광물(111) 관련 업종은 2분기 활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화학(83), 섬유 의류(67), 전기전자(50), 식음료(59), 종이나무(60) 관련 제조업의 경우는 기준치를 밑돌아 부진을 전망함
- ☐ 특히, 식음료(59) 업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을 포함한 물가상승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소비가 둔화되면서 이번 분기에도 어려움을 예상함

【 2023년 2/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자동차	화 학	기계금속	섬유 의류	전기전자	식음료	종이나무	비금속광물	기 타
BSI	132 (70)	83 (75)	108 (88)	67 (67)	50 (50)	59 (54)	60 (67)	111 (48)	50 (100)

※ ()는 지난 1/4분기 BSI 전망 수치

5. 규모별 경기전망

- ☐ 기업 규모별로는 우리지역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을 예상한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63’, 중소기업 ‘97’ 로 대기업의 경우 2023년 2분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2023년 2/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63 (58)	97 (76)

※ ()는 지난 1/4분기 BSI 전망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 기업의 매출유형별로는 수출기업(69)과 내수기업(95)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2/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전체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91 (70)	69 (68)	95 (71)

※ ()는 지난 1/4분기 BSI 전망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 2023년 2/4분기 도내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북서남(105)을 제외한 전주(92)와 익산(80), 군산(86)지역 모두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23년 2/4분기 지역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BSI	92 (53)	80 (80)	86 (85)	10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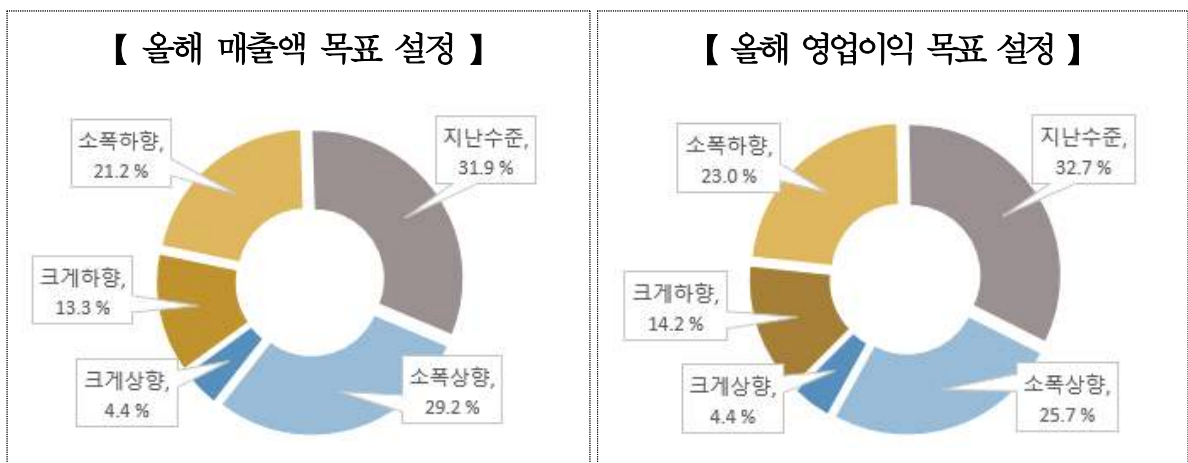
※ ()는 지난 1/4분기 BSI 전망 수치

8. 2023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설정

- 우리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올해 시장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지난해 대비 하향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의 경우 목표를 ‘지난해 대비 낮췄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상향 조정했다’는 응답이 33.6%,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31.9%를 차지함
-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대비 낮췄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32.7%, ‘상향 조정했다’는 응답이 30.1%로 나타남
- 한편,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 모두 ‘큰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매출액 13.3%, 영업이익 14.2%)’는 응답이 ‘큰폭으로 상향 조정했다(매출액 4.4%, 영업이익 4.4%)’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시장속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소극적인 경영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

구 분	상 향	비 슷	하 향
매출액 목표	33.6	31.9	34.5
영업이익 목표	30.1	32.7	37.2



9. 올해 상반기 예상 경영리스크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꼽은 기업이 7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가 및 금리 인상(46.0%)’,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32.7%)’, ‘원부자재 수급불안(20.4%)’,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7.7%)’, ‘미·중 갈등,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5.3%)’, ‘기업부담법안 입법(2.7%)’ 순으로 조사됨 (복수응답)

